

“내인생 이제 장막극의 2막 언저리 열심히 달려 노벨상 수상이 최종꿈”

젊음! 그 열정과 꿈

<7> 희곡 작가 김은성씨

희곡 작가 김은성(34)처럼 이번 여름을 뜨겁게 보낸 이도 드물 것이다. 그의 맑은 하나 하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등단 6년 차의 젊은 작가지만 중견작가들도 내기 힘들다는 희곡집을 썼고 극단까지 창단하기에 이르렀다.

12일 찾은 담양 '글을 낚는 집'에 있는 그의 작업실은 고시원을 연상케 했다.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은 자료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엔 수험생처럼 일정을 쓴 달력과 생활계획표가 붙어 있었다. 침대와 책상 밖에 없는 방은 깨끗했지만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2006년 원주 토지문화관 이후 전국의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이런 생활에 이력이 없다고 했다.

보성서 태어났지만 10살 때 상경해, 서울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출을 전공했으며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시동라사'가 당선돼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창작실을 찾아 다니며 집필에만 전념해서인지 그는 등단 이래 '찌질이 신과국' '죽도록 죽도록' '순수삼촌' '목란 언니' 등 많은 작품을 썼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의 한 부유층 가정에 입주한 교포 가사도우미를 한국사회를 냉철하게 비판한 연극 '연변 엄마'를 대학로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2010 대산창작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얼마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은 터라 '전업작가'로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노벨상을 꿈꾸는 것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지만 희곡이라는 장르가 흥행 받는 게 현실이고 나 또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창작을 위해 가위질을 해야하는 처지"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남의 시선 개의치 않고 창작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은 좋

은 일이에요. 남들 보다 형편이 좋은 편이죠"

김씨는 또 스승 운도 따랐다고 말한다. 2007년 작고한 스승 윤영선 작가가 그의 많은 분께 '양심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 '흥겹고 재미있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 등을 보고

인이 추구하는 문해세계와 희곡 장르에 누구 보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작가지만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에 대해서도 정감을 갖고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라고 평했다.

"4, 5막 하는 장막극에서 1막 받

을 거쳐 2막 전개로 가는 언저리쯤에 서 있다"는 김씨는 순수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지금 이대로만 열정을 갖고 달려 간다면 그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담양=김대성기자 bigkim@

희곡집 내고 극단 창단...대산·서울 문화재단 기금 받아

“전라도 유전자 살려 사투리 작렬하는 희곡 구상중”

배웠다고 말했다. 가능한 재미있게, 전업작가로서 신념을 지켜가며 살고 싶다는 김씨의 문학관은 강건했다.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에서 잘 해 내는 이야기는 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작은 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진지한 이야기, 사회 기록권이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희곡으로 쓰고 연극으로 만들려고 해요."

김씨는 품속에 흐르는 '전라도 놈'이라는 유전자를 살려 전라도 사투리가 작렬하는 희곡도 구상하고 있다. 그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80년 광주민중항쟁, 5·18 이후 1년이다. '국풍 81'이라는 거창한 행사도 열렸는데 이 때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는 질문에 그는 대답 "노벨문학상 받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꿈은 아무것도 거창해 아한다는 게 그의 지론. 웃음 섞인 답변이지만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이달 초 극단 '달나라 동백꽃'을 창단하고 대표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앞만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걸 재다 보면 될 일도 안될 것 같아 "질렀다"는 것이다.

글을 낚는 집에서 9개월 간 그를 지켜본 김규성 시인은 김씨에 대해 "본



희곡 작가 김은성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 담양 '글을 낚는 집'에 머물면서 '연변 엄마' 등 장·단막극 5편을 쏟아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럽과 '자매 3중주단' 광주 온다

'김트리오' 24일 문예회관서 콘서트

유럽 무대에서 활약중인 김트리오가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광주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피아노의 김나영, 바이올린 김태현, 첼로 김지연 세 자매로 구성된 김트리오는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2년 독일 브라운 클라시스 페스티벌이 주최한 실내악 코스에 장학생으로 초청되면서 트리오로 활동하기 시작한 김트리오는 노르웨이 트론드하임 국제 실내악 콩쿠르 3등을 시작으로, 이태리 트라파니 국제 실내악 콩쿠르(2004년) 등에서 수상했다. 특히 2005년 12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독일 베를린 멘델스존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09년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헤르만 리우에 현대 음악상을 수상했다.

김트리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음대 실내악 과정,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실내악 과정,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 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D장조',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장조',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단조'.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10-6297-67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 아트, 만들고 전시하고

우제길미술관 20일~10월 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

광주 무등산 자락의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20일~10월 1일 아이들이 직접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어보고, 이를 전시하는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이이남 작가와 그의 악동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1년 문화예술 명예교사지원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이남 씨가 교사로 나와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게 된다.

또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샌드 애니메이션 등을 경험해 보고, 컴퓨터를 이용해 명화를 패러디한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 작품은 오는 10월 15일~23일 우제길미술관에 전시된다. 초등학교 3~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서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광주문화재단 문예기금 공모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18일 2차 토론회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광주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광주 폴리,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연다.

이 모임은 광주 도심 곳곳을 장식하게 될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어번폴리(Urban folly)'를 시민들이 직접 가꾸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선대 조용준 교수의 진행으로 건축사 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대표가 발제를 한다. 또 호남대 신태양 교수, 광주문화재단 박호재 문화정책실장, 동신대 이상준 교수,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이기수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현재 광주 어번 폴리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건립 후 관리 대책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주최하는 2012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광주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광주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2012년 공모사업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설정, 각각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역량 강화' 및 '예술 한류'를 위한 국제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2012년 공모사업은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실용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예술정간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등 총 11개 분야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의 062-670-7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PREMIUM BUFFET IELYSIA
 NH N 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 효소 웰드덕 쪼 |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